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속보: 2012년 11월 10일

CUOMO 주지사, 약사, 응급환자 담당의사(EMT), 치과의사들에게 허리케인 SANDY 피해 지역에 파상풍 백신 투여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다

뉴욕주 및 뉴욕시 보건부, 시민들에게 감영 예방을 위해 파상풍 백신을 접종할 것을 권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허리케인 Sandy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폭우 발생 이후 청소 작업을 하는 도중 파상풍 박테리아에 노출되어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사고를 막기 위해 파상풍 백신 주사 접종 방법을 좀 더 용이하게 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본 행정명령에 따라 약사들은 영업점에서 파상풍 주사제를 투여할 수 있게 되었고, EMT와 치과의사들은 파상풍 백신을 투여할 때 시 및 카운티 보건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뉴욕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는 일은 허리케인 Sandy 이전이나 그 당시, 또는 그 이후에도 우리의 최우선사항이었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폭풍에 따른 청소 작업을 수행하는 분들은 필요할 경우 파상풍 백신 투여를 비롯해 필요한 모든 보건 관련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행정명령으로 폭풍 피해 지역 주민들은 예방 접종을 보다 쉽고 빠르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폭풍 쓰레기 잔해를 치우다가 깊게 베이거나 상처가 날 수 있으므로, 흙이나 더러운 물건을 만지는 작업을 수행하거나 허리케인 Sandy로 집을 수리할 때에는 파상풍 감염을 주의해야 합니다. 복구, 건설 및 청소 작업에 참여하는 응급반원, 자원봉사자 및 지역 주민들은 지난 10년 이내에 파상풍 접종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에 접종하지 않았거나 마지막 파상풍 접종 날짜를 잘 모르는 경우 파상풍 치료 촉진제를 받아야 합니다.

뉴욕주 보건부와 뉴욕시 보건정신위생부(Department of Health and Mental Hygiene)는 시민들에게 먼저 담당 의료기관에 연락해서 파상풍 치료 촉진 주사를 맞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담당 의료기관이 운영중이 아니거나 직접 찾아갈 수 없는 경우 지역 제약부 또는 지역 보건부에 연락하여 이 주사를 맞을 수 있는지 문의하도록 하십시오. 피해 지역의 많은 약국에서는 이들 백신을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뉴욕시민들은 311에 전화하면 백신 사이트를 알 수 있습니다.

Korean

이번 주, 뉴욕주 보건부는 총 5,000명 분의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Tdap) 백신을 다음 카운티에 배포했습니다. 그 중 1,500명 분은 Suffolk 카운티에, 보급했고, 1,500명 분은 Nassau 카운티에, 1,000명 분은 Rockland 카운티에, 1,000명 분은 Westchester 카운티에 배포하였습니다. 뉴욕시는 Tdap과 Td(파상풍 및 디프테리아) 백신 모두 보유해놓고 있습니다.

파상풍은 흙먼지, 토양 또는 배설물에 포함된 박테리아로 발생되는 전염병으로 찔린 상처 부위나 베인 부위를 통해 몸 속으로 침투합니다. 몸 속으로 침투한 뒤에는 박테리아가 목과 복부에 고통스런 근육 수축을 야기하는 독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독소는 "개구 장애(lockjaw)", 즉 턱이 뻣뻣해지는 증상이 특징인데 호흡곤란을 악화시기도 합니다. 파상풍은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청소 작업이나 건설 활동 시 부상 방지를 위한 안전 지침을 준수하는 것 외에도 모든 상처와 베인 부위는 비누와 물로 깨끗이 씻어내어야 합니다. 찔린 상처와 열상을 입은 경우 의학적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지난 5년 동안 파상풍 치료 촉진 주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부상 치료의 일환으로 재접종을 해야 합니다.

대대적인 면역 활동의 결과 파상풍은 미국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질병이 되었습니다. 뉴욕주에서 탁아소에 다니는 모든 어린이와 K-12 학년 어린이들은 주법에 따라 일련의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예방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1994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나 6-11학년에 등록할 예정인 어린이도 치료 촉진 백신(Tdap)을 맞아야 합니다.

백신은 상처를 앓은 사람에게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일부의 경우 파상풍 면역 글로불린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권장하는 파상풍 치료 촉진제는 Tdap(파상풍, 디프테리아 톡소이드 및 무세포 백일해) 형태로, 이 촉진제는 다른 두 가지 질병으로부터도 보호해줍니다. Td(파상풍 및 디프테리아) 치료 촉진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Tdap은 Td보다 더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며, 성인의 백일해도 치료해줍니다. 올해 주 전역에 신고된 백일해 발생 건수도 증가했습니다.

파상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www.health.ny.gov/diseases/communicable/tetanus/fact_sheet.ht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Korean